

HRD  
6월의 이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 고용노동부, 부산시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협약체결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 데이터 순차 개방



2021년 NCS 확정·고시

**10개 신규, 137개 개선**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특별고용지원 업종)**



상반기 해외 취업 화상면접

**75개사 640건**



4월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65.2만 명 증가**



네 믿음은 네 생각이 된다. 네 생각은 네 말이 된다.  
네 말은 네 행동이 된다. 네 행동은 네 습관이 된다.  
네 습관은 네 가치가 된다. 네 가치는 네 운명이 된다.

-마하트마 간디-

통권 제63호  
 발행일 2021년 6월 10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052-714-8322  
 구독신청 및 문의 1999sss@hrdkorea.or.kr



## cover story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개발 및 고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협약체결 등을 통해 고용 시장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정책 NOW

- 04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 06 '21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고시
- 07 고용노동부 장관, 소프트웨어 산업현장 방문 및 인력양성방안 논의
- 0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 09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 현장 NOW

- 10 고용노동부, 부산시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협약체결
- 1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 데이터 순차 개발
- 11 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미용사회중앙회 업무협약 통해 수험자에게복지환원 서비스 제공
- 12 폴리텍, AI+x 인재 양성 협약 및 공동 선언 발표
- 13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과 간담회 개최
- 13 2021 생활 밀착형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발간
- 14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과 사업 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14 한국고용정보원-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체결
- 15 2021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개최 및 해외취업 청년간담회 실시
- 16 한국산업인력공단-영국 국제기능경기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 16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 고용 BRIEF

- 18 2021년 4월 고용동향

## 연구 ISSUES

- 20 디지털 노동자의 계층화와 노동시장 이행
- 20 비대면 시대의 인적자원개발 혁신
- 21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 종합평가 연구
- 21 '19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활용실태조사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 기관 PLAN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23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 국무회의 의결

###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6개월 고용유지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

2021년 5월 18일, 고용노동부

정부는 5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세부내용

##### 1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

\* '20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p): (15~29세) △1.3 [(15~19세) △1.0 (20~24세) △2.4 (25~29세) △2.8] (30~39세) △0.7 (40~49세) △1.3 (50~59세) △1.1 (60세 이상) +0.9

◇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에서는 고용률 개선,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확장실업률은 25.1%로서 높은 편이고, 취업애로계층 123만 명(청년경제활동인구의 28.9%)도 상당한 편임

\* '21.4월 ▲청년고용률은 43.5%로서 전년동월대비 +2.6%p 상승, ▲취업자수 383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 명 증가

◇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의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21년 신규 지원(9만 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연도 중 신규 지원이 종료(5.31.) 됨에 따라,

-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저하된 중소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청년 채용의 애로가 더욱 커지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임

-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살아나는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큼\*

\* (경총, '21년 신규채용 및 언택트채용 활용실태 조사) 올해 채용 계획 있는 기업 40.3%에 불과, 이중 지난해 수준 ▲유지 37.9% ▲축소 37.4% ▲확대 24.6% 순 응답

(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기업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 고용장려금 제도 확대 필요

◇ 이에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1년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음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가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인건비 지원(연 최대 900만 원, 최대 3년) → '18~'21년 한시사업('21년 신규 지원 9만 명, 1조 2천 억)

\* '17년부터 '21년까지 한시(限時) 사업으로 동 마감 공고 이후 신규지원은 종료(이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3년까지 계속 지원)



**2 지원내용**

- 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 \*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②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 증가
- ③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함

**3 지원규모 및 소요예산**

- ◇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년간 7,290억 원, 9만 명('21년 2,250억 원, '22년 5,040억 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임

**4 향후일정**

- ◇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하여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 분야의 인력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 ● '21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고시

### 4차 산업혁명, 비대면 산업분야 NCS 10개 신규개발, 고시 기후변화적응, 폐자원에너지생산 등 저탄소 산업 분야 포함 137개 NCS 개선

2021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는 5월 27일(목) '20년 신규 개발한 10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이미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 중 개선 작업을 완료한 137개를 확정·고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지난해 확정 고시('20.6.12.)된 1,022개에 신규 10개를 더해 현재까지 총 1,039개\*가 개발됐다.

\* 기존 '비파괴검사' NCS는 총 8개 NCS로 분할('20년)

이번에 개발·고시된 직무능력표준(NCS)에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산업 등의 실무인재 양성에 필요한 직무를 선정했으며,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기획, 자율주행하드웨어개발, 인공지능서비스운영관리 등의 직무가 개발됐다.

#### 신규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0개 목록

구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디지털	디지털포렌식, 디지털트윈기획
자율주행	자율주행HW개발, 자율주행SW개발
스마트물류	스마트물류체계기획, 스마트물류플랫폼구축, 스마트물류통합관리
인공지능	인공지능서비스운영관리, 인공지능서비스구현
스마트제조	금형스마트시스템운영·관리

산업현장 변화에 맞춰 새롭게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관계부처, 산업계,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용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SK, 삼성물산, LG CNS 등 총 705개 업체의 검증을 거쳐 현장의 실효성을 높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에 자격, 훈련 분야 등의 전문가를 더 많이 참여시키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합동회의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산업환경 및 기술의 변화, 법령개정 등 산업계 요구에 따라 이미 개발된 13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도 진행했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급변하는 산업현장 변화에 발맞춰 고시된 이번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자격, 교육 훈련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존 세분류 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산업현장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현장성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21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고시  
보도자료



정책NOW 3

● 고용노동부 장관,  
● 소프트웨어 산업현장 방문 및 인력양성방안 논의

고용노동부 장관, 소프트웨어  
산업현장 방문 및 인력양성방안 논의  
보도자료



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모델, 6월중 마련할 것

2021년 6월 2일, 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2일(수) 클라우드 시스템 컨설팅 기업이자 자체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메가존클라우드’를 방문하고 소프트웨어(SW)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이달 중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관련 산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인재 양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부는 기업이 주도하는 인재 양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시연과 인재 양성에 대한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 시연이 이루어졌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로나19 검진(빅노이드),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코로나19 디지털 상황판(빅스데이터)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확장하는 소프트웨어(SW) 산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진 간담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현장의 의견

- ◇ 기술 개발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면서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협업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및 실제 대규모 채용으로 연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
  - 메가존클라우드 조성범 대표
- ◇ 인력 확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생존 문제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
  - 클라우드산업협회 이창길 본부장
- ◇ 분야별(의료·플랫폼업 등) 특화 교육 과정 개발 및 지원 필요성을 언급
  - 딥노이드 최우식 대표 및 메쉬코리아 강대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 디지털 핵심인재 18만 명 양성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왔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6월 중에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 국무회의 심의의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규정 마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요건 규정

2021년 6월 1일, 고용노동부

정부는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7.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 ① (적용대상)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이 오는 7.1일부터 고용보험에 적용된다.
- ② (보험료율)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 ③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제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7.1.)

◇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1.7.1. 시행)으로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업주·종사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그간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어 실 적용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올해 7.1일부터는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고,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근로기준법 (시행일: 공포일)

◇ 형법상 허용되는 낙태에 대해 유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거 규정을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형법 제270조의2’로 변경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정책NOW 5

●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①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2021년 6월 3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6월 1일(화)부터 6월 3일(목)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이 가능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여 사업장 7만 2천개소 근로자 77만여 명(연인원 228만)에 대해 2조 2,779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 6천개소, 근로자 26만 명(연인원 62만 명)에 대해 6,52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여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주요 특별고용 지원 업종 생산지수 및 피보험자수 감소 현황

- 생산지수('19 → '21.3): 전산업 108.1 → 107.8, 여행업 124.1 → 12.8, 관광숙박업 103.9 → 54.9, 항공운수업 131.9 → 71.5, 항공기취급업 132.5 → 40.1
- 피보험자수('20.4 → '21.4): 전체 422천 명 증가(13,775 → 14,197), 여행업 8.6천 명 감소, 관광숙박업 4.5천 명 감소, 관광운송업 4.2천 명 감소, 항공기취급업 1.3천 명 감소

안경덕 고용노동부장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보도자료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현장NOW 1

● 고용노동부,  
● 부산시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협약체결

2021년 5월 7일, 고용노동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7일(금) 13:10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태석 사하구청장, 노기태 강서구청장, 김대근 사상구청장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부산 지역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지난 5월 3일 울산컨소시엄과의 업무협약 이후 두 번째 업무협약식이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는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고용위기지역 제도 등 지역 노동시장에 고용위기가 발생한 후 사후적 대응을 하는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년 신설되어 시작했다.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 컨소시엄은 연간 40~140억 원을 최대 5년간 지원 받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시 컨소시엄은 올해 국비지원액 65억 원을 포함한 총 81.3억 원을 투입,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올해 1,110개 포함 5년간 총 6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부산시 컨소시엄은 서부산권 부품산업 위기로 고용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부품산업의 고도화 및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등 중·장기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화진 차관은 부산과의 업무협약식 축사를 통해, “자동차·조선업이 전기차,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위주인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자동차·조선산업에 기계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지역인 부산 서남권의 일자리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적인 기계부품 기업들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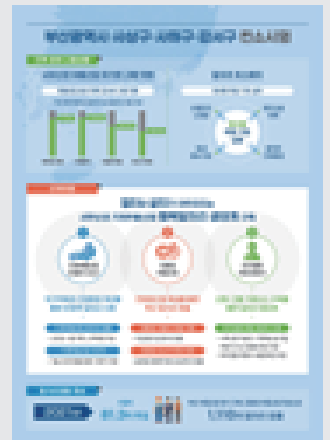
또한, “위기 산업 근로자들의 이·전직을 지원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협약을 체결하는 패키지 사업이 부산의 고용안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부산시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협약체결 보도자료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



현장NOW 2

●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노동 데이터 순차 개발

2021년 5월 11일,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5월 11일부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민기영)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중구에 있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미공개 고용·노동 통계 정보를 공개한다.

데이터 안심구역(dsz.kdata.or.kr)은 미개방 데이터를 연구단체·기업·교육기관 등 누구나 제한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직업훈련 통계 보고서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확대 제공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코로나 시대에 노동시장 상황(워크넷 구인·구직자 현황, 훈련과정 현황 등)을 제공하여 자치단체의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노동시장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방은 8월 예정인 연구자 대상 원시 데이터(Raw data) 개방에 앞서 고용·노동 데이터 개방에 대한 통계제공 범위(항목, 목록 등), 이용 편의성 등의 사용자 수요와 의견 수렴(5.11.~6.10.)을 위해 추진됐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개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노동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고용노동 행정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  
데이터 순차 개발 보도자료

현장NOW 3

● 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미용사회중앙회  
● 업무협약 통해 수험자에게 복지환원 서비스 제공

2021년 5월 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5월 14일(금), 서울 서초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본사에서 대한미용사회 중앙회(회장 이선심)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자격 수험자에게 미용서비스 요금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험자는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전국 1,000여 개 회원 미용실에서 수험자 본인의 미용서비스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다.

\* 해당 미용실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Q-net.or.kr)에서 확인

공단은 시범적으로 2021년 6월 1일~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에게 영화, 의료, 레저의 이용요금 할인 등 복지환원 서비스를 제공해 수험자 편의 증대와 유관기관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공단에서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수험자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310만 명, 공인중개사 등 국가전문자격 57만 명으로 총 367만 명이였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자격 수험자들이 1,000여 개 미용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업무협약 통해 수험자에게  
복지환원 서비스 제공 보도자료

현장NOW 4

● 폴리텍,  
● AI+x 인재 양성 협약 및 공동 선언 발표

2021년 5월 12일,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조재희)은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와 함께 「AI기술(AI+x)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이어, 3개 협약기관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와 함께 「한국판 뉴딜 추진 공동 선언 서약식」도 가졌다.

1 한국판 뉴딜 추진 공동 선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3개 협약기관이 가진 「한국판 뉴딜 추진 공동 선언 서약식」에서는, 상호 연대와 협력, K-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강화를 통해 디지털 경제 대전환 등 한국판 뉴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21세기 대한민국을 디지털경제, 그린생태계, 휴먼공동체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종합적 국가혁신전략이다.”라고 한국판 뉴딜 추진의 의미를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라며 오늘 공동선언식의 필요성과 함께 3개 협약기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재희 폴리텍 이사장은 “인공지능(AI)은 기술을 넘어 모든 산업과 일상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영역이다.”라고 AI 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폴리텍은 일하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직업기술교육대학으로서 산업과 일자리 변화에 대응할 글로벌 AI+x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2 폴리텍 ‘AI+x 인재’ 양성 계획

폴리텍은 AI+x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대상별 과정을 차별화해 수립하고, 교원역량 향상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 ◇ (인재양성) AI+x 교육은 IT전공자 대상 심화교육, IT비전공자 대상 친화교육,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하고 시범교육은 친화교육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 (교원역량)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 6월부터 전 교원을 대상으로 단계별 AI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수료 후 학생대상 시범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폴리텍은 속도감 있는 ‘AI기술(AI+x)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 부터 하이테크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폴리텍은 올해 AI 분야 학과 개편 및 신설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교육 중인 AI 분야 개편·신설 학과들도 운영에 박차를 가한다.

- ◇ (21년 개편학과) 스마트ICT융합과(청주캠퍼스)는 2년제 학위과정으로 기존 정보통신시스템과가 새롭게 바뀐 경우다. 생산 장비에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원자재 적재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생산 공정을 예측·진단할 수 있는 현장형 실습실을 갖췄다.
- ◇ (21년 신설학과) AI융합과(광주캠퍼스)와 AI엔지니어링과(대구캠퍼스)는 인공지능 플랫폼 기능 구현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 자격을 갖춘 청년 취업희망자에 특화된 고급 기술 교육과정(하이테크과정)을 제공한다.

폴리텍, AI+x 인재 양성 협약 및 공동 선언 발표 보도자료



\* AI기술(AI+x)인재 : 기존 전문 기술에 AI기술을 융합하여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전문가

**현장NOW 5**

**● 고용노동부,  
●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과 간담회 개최**

**| 2021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0일(목)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인 (주)푸드나무(서울 마포구)를 방문하여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의 기업 참여 현황 및 현장 애로사항을 확인하면서 지난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6월 본격 개시 전 기업·청년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푸드나무 김영문 대표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업이 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 및 유지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며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참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기업의 채용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은 기업과 청년이 윈윈(WIN-WIN)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사업으로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 고용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는 “현재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에 따른 고용안정망 확충 및 미래 산업에 대한 대응이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청년들의 현실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안경덕 장관은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된 안정된 일자리를 바탕으로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의 회복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미래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노사단체와 협력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장NOW 6**

**● 2021 생활 밀착형  
●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발간**

**| 2021년 5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5월 24일 구인 및 취업 수요가 높은 국가기술자격 정보를 모아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밀착형 국가기술자격” 정보집을 발간했다.

정보집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을 위해 구인 및 취업 수요가 비교적 높은 자격을 선별해 작년부터 제작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전년도 28종목에서 32종목으로 확대해 시험방법 및 내용, 합격률, 취업분야 등의 자격정보를 담았으며, 취업희망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도 지자체 등에 우선 배포한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발간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자격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다양한 고객들에게 맞춤형 자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과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5인 이상 중·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 및 전체 근로자 수 증가 시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9만 명, 6월 중 공고 예정)

\* '21.4월 청년 고용 동향(전년동월 대비) ▲고용률 43.5%(+2.6%p) ▲취업자수 3,832천명(+179천명)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 25.1%(-1.5%p) 등

< 2021 생활 밀착형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



현장NOW 7

●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과  
 ① 사업 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21년 5월 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5월 14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CSI노베이션(주)을 방문해 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현장교사는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고숙련자로서 근로자가 업무에 필요한 숙련을 높이도록 지도하고 기업에 적응력을 높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는 학습기업에서 일학습병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개선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전국의 다양한 직무분야에서 학습근로자를 지도하고 있는 기업현장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스승의 날 감사선물 전달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했다. 학습근로자가 자신의 스승인 기업현장교사를 직접 감사선물 대상으로 추천토록 하여 300명의 기업현장교사를 선정하였고, 케이크와 꽃을 학습기업으로 보내 감사함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일학습병행 추진계획(2021~2023년)의 시행을 통해 기업현장교사의 역할 확대, 대외활동 지원과 혜택 제공 등을 위한 기업현장교사 등급제의 신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기업현장교사는 인적자원개발 전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며, 현장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활동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학습  
 기업과 사업 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현장NOW 8

● 한국고용정보원-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장학재단  
 ① 업무협약 체결

2021년 5월 24일,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이 5월 24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중견기업 인식개선 및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 중견기업의 인재 채용과 청년의 중견기업 취업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정보원과 두 기관은 ▲청년 취업 활성화 ▲맞춤형 우수 인재 육성 ▲기업-구직자 간 미스매칭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고용정보원은 청년 고용 현황 등 일자리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청년 대상 진로·취업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우수 중견기업 채용 정보를 워크넷, 청년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에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인재 확보를 도울 계획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이끌고 대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우수 중견기업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층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고용정보원이 보유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돕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한국중견  
 기업연합회-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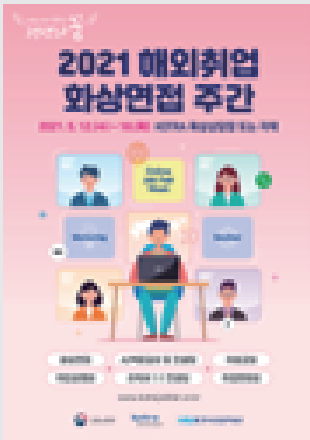


## ● 2021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개최 및 ● 해외취업 청년간담회 실시

2021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개최 및 해외취업 청년간담회  
실시 보도자료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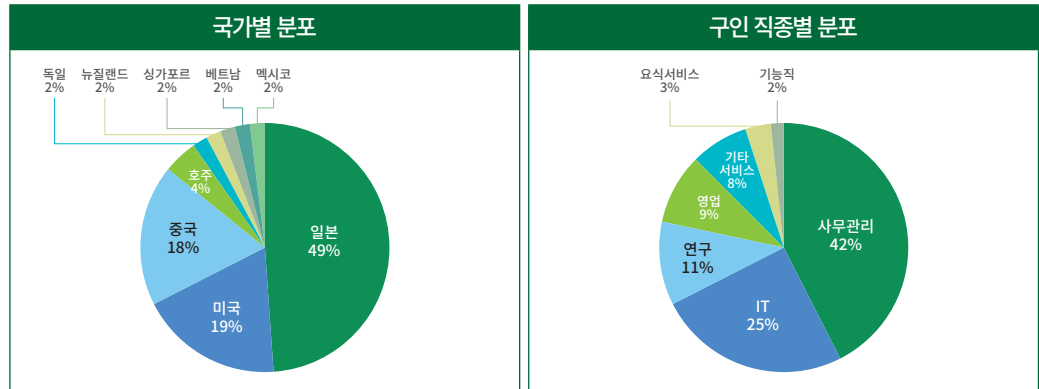


2021년 5월 12일~18일, 고용노동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2021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을 개최했다.

이번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에는 9개국 75개사가 참여하여, 200명의 한국 청년을 채용하기 위해 640건의 면접이 진행됐다. 구인기업을 보면 일본 50개사, 중국 9개사, 미국 9개사, 호주 2개사가 참여하며, 그 외 독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에서 각 1개사가 참여했다.

구인직종은 사무관리 85명, 정보기술(IT) 50명, 연구 22명, 영업 17명, 기타서비스 16명, 요식서비스 6명, 기능직 4명 순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무관리 및 정보기술(IT), 연구직 등이 78.5%를 차지한다.



정부는 그간 「글로벌 일자리대전」에 해외 구인기업들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해외취업을 위한 대규모 채용 행사를 진행해왔으나, 2020년부터는 해외 기업을 국내로 초청하는 대신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국내 청년들이 화상면접을 통해 해외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화상면접 주간에는 사전행사 및 부대행사도 개최됐다. 사전행사에는 인공지능(AI) 역량검사가 도입되었고, 이는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인공지능(AI) 역량검사를 바탕으로 청년들은 맞춤형 해외취업 전문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화상면접 주간인 5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월드잡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월드뱅크,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기구 직원 및 현지 해외취업 전문가 등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해외취업정보, 해외취업환경 및 전략 등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회에 첫발을 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 청년들에게 가장 큰 피해로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일자리 창출 확대에 힘쓰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화상면접 주간」 등을 통해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면서, 청년 해외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현장NOW 10**

● **한국산업인력공단-영국 국제기능경기**  
●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5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영국 국제기능경기 조직위원회(WorldSkills UK)(CEO Neil Bentley-Gockmann)와 5월 27일 직업기술교육훈련과 기능경기대회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했다.

공단이 국제기능올림픽조직위원회(WSI) 회원국 기능경기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 공동 콘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공동 연구, 국제기능올림픽 출전 선수 합동 훈련, 친선 기능경기 등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개도국 기능경기대회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영국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국제기능경기 회원국에 기능경기대회 운영 기술, 선수 육성 방법 등 전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공단은 영국 국제기능경기 조직위원회가 옥스퍼드대학교 공동으로 국제기능올림픽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기능경기과 직업기술교육훈련 연관성에 관해 실시한 연구에 참여한 바 있으며, 영국 국제기능경기 조직위원회가 주관해 러시아, 싱가포르 등 총 7개국을 대상으로 개최한 사이버보안 직종의 비대면 친선경기대회에도 우리나라 국제지도위원과 국가대표 3명이 참여했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국가와 직업능력개발 및 기능경기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단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장NOW 11**

● **고용노동부 산하**  
●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2021년 6월 3일, 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개 산하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6월 3일(목) 정부 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①기관별 핵심사업 추진상황 점검, ②국민의 신뢰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혁신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안경덕 장관은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 가입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과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조치 지도·감독,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등에 전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산업현장과 고용노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그보다 더 빠르게 공공서비스의 변화방향을 고민해야 하며,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의 중심을 국민에 두고 조직의 체질 개선과 역량 강화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영국  
국제기능경기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1년 6월 서울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WORLDJOB+

# 해외취업 아카데미 K-Learning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해외취업 구직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 간** '21. 6. 9(수) ~ 6. 18.(금) 매주 수 | 목 | 금, 14:00~16:00(2H)
- 방 법** 실시간 온라인 강의(ZOOM활용)
- 모집인원** 과정별 40명 내외
- 신청기간** '21. 6. 6(일)까지 ※6.7(월) 확정 통지 예정
- 참가자격**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청년
-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 ▶ [해외취업가이드](#) ▶ [해외취업아카데미](#)  
▶ [6월 서울해외취업아카데미 신청](#)

**프로그램 내용**

비즈니스 중국어 [6월 2주차, 14:00~16:00]	영어 면접전략(기초) [6월 3주차, 14:00~16:00]
<p><b>1</b> 1차시 6.9.수 인사, 첫대면</p> <hr/> <p><b>2</b> 2차시 6.10.목 업무 전달 및 연락</p> <hr/> <p><b>3</b> 3차시 6.11.금 업무 일정, 미팅</p>	<p><b>1</b> 1차시 6.16.수 영어면접개요</p> <hr/> <p><b>2</b> 2차시 6.17.목 면접 준비하기</p> <hr/> <p><b>3</b> 3차시 6.18.금 면접 문답 분석</p>

**문 의** 서울해외취업센터 ☎ 02-6964-7072 ✉ shlee@hrdkorea.or.kr

# 2021년 4월 고용동향

고용노동부, 2021

### 주요결과

- ❖ 취업자수가 +65.2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4.0%)은 0.2%p 하락하는 등 지난 3월에 이어 고용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
- ❖ 최근 고용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자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대면서비스업과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

### 취업자 및 실업자

#### 4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65.2만 명 늘어나 2개월 연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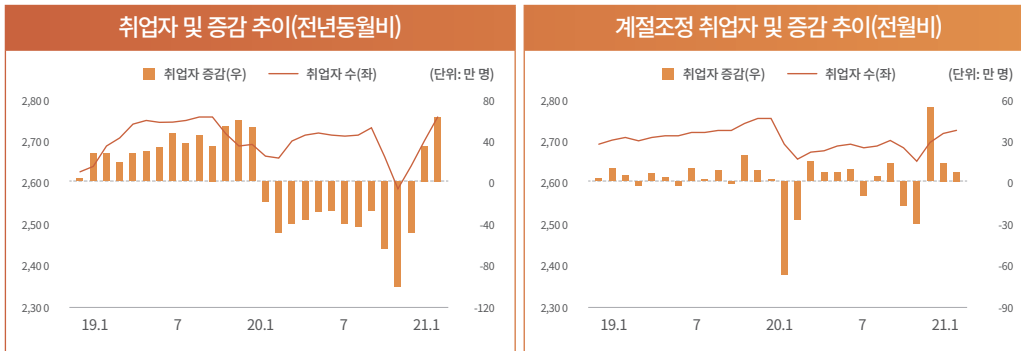
- \* 취업자(만 명, 전년비) : ('20.11)△27.3 (12)△62.8 ('21.1)△98.2 (2)△47.3 (3)31.4 (4)65.2
- \* 15세 이상 고용률('20.4 → '21.4, %) : 59.4 → 60.4<+1.0%p> / 15~64세 고용률('20.4 → '21.4, %) : 65.1 → 66.2<+1.1%p> / 경제활동참가률('20.4 → '21.4, %) : 62.0 → 63.0<+1.0%p>

#### ◇ 고용률·경황률이 상승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전월 대비 개선

- \* 고용률 등락(전년비, %p) : ('20.12)△1.7 ('21.1)△2.6 (2)△1.4 (3)0.3 (4)1.0
- \* 경황률 등락(전년비, %p) : ('20.12)△1.3 ('21.1)△1.7 (2)△1.0 (3)0.3 (4)1.0

#### ◇ 전월대비 취업자(계절조정)는 +6.8만 명 늘어나 3개월 연속 증가하며 2월 이후로는 72.8만 명 증가

- \*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 명) : ('20.12)△17.7 ('21.1)△29.8 (2)53.2 (3)12.8 (4)6.8



#### 업종별로는 제조업 고용이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된 가운데, 서비스업 취업자는 2개월 연속 증가, 농림어업은 감소

#### ◇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며 제조업 고용은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

- \*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0.12)△11.0 ('21.1)△4.6 (2)△2.7 (3)△1.1 (4)0.9

#### ◇ 서비스업은 민간·공공 일자리가 개선되며 +50.7만 명 증가

- \*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0.12)△60.4 ('21.1)△89.8 (2)△50.2 (3)26.2 (4)50.7

#### ◇ 농림어업 취업자는 2개월 연속 감소, 건설업은 증가

- \* 농림어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0.12)5.9 ('21.1)△1.4 (2)3.3 (3)△2.6 (4)△0.3
- \* 건설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0.12)2.3 ('21.1)△2.0 (2)2.8 (3)9.2 (4)14.1

#### 중상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이 4개월 연속 확대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도 증가 지속

-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폭이 축소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세 지속, 무급가족 종사자 감소폭 축소

2021년 4월  
고용동향



\* '21.3 → 4월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 명) : (상용직)20.8 → 31.1 (임시직)20.6 → 37.9 (일용직)4.1 → 3.8 (고용유자영업자)△9.4 → △6.5 (고용무자영업자)1.3 → 2.7 (무급)△6.0 → △3.9

**연령별로는 청년·50대·60대 취업자는 증가세 지속, 30~40대는 감소폭 축소**

\* '21.3 → 4월 연령별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 명) : (청년)14.8 → 17.9 (30대)△17.0 → △9.8 (40대)△8.5 → △1.2 (50대)1.3 → 11.3 (60세 이상)40.8 → 46.9

**실업률은 실업자수가 감소하며 하락**

\* 실업자(만 명) : ('20.11)96.7 (12)113.5 ('21.1)157.0 (2)135.3 (3)121.5 (4)114.7

- 증감(전년비, 만 명) : ('20.11)10.1 (12)19.4 ('21.1)41.7 (2)20.1 (3)3.6 (4)△2.5

\* 실업률(%) : ('20.11)3.4 (12)4.1 ('21.1)5.7 (2)4.9 (3)4.3 (4)4.0 <전년비 △0.2%p>

**일시휴직자는 40.3만 명으로 2개월 연속 큰 폭 감소세 지속**

\* 일시휴직자(만 명) : ('20.11)47.4 (12)74.5 ('21.1)89.2 (2)69.8 (3)42.7 (4)40.3

- 증감(전년비, 만 명) : ('20.11)18.9 (12)43.8 ('21.1)34.6 (2)8.0 (3)△118.0 (4)△108.2

### 👤 청년(15~29세) 고용

**청년층 취업자수는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

\* 청년층 인구(전년비, 만 명) : ('20.12)△17.2 ('21.1)△13.2 (2)△14.2 (3)△13.6 (4)△12.9

\*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0.12)△30.1 ('21.1)△31.4 (2)△14.2 (3)14.8 (4)17.9

**◇ 고용률·실업률은 상승하고 확장실업률은 하락**

\* 청년 고용률('20.4 → '21.4, %) : 40.9 → 43.5 <+2.6%p>

\* 청년 실업률('20.4 → '21.4, %) : 9.3 → 10.0 <+0.7%p> / 청년 확장실업률('20.4 → '21.4, %) : 26.6 → 25.1 <△1.5%p>

**◇ 청년 비경험인구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며 감소폭 확대**

\* 청년비경험인구 증감(전년비, 만 명) : ('20.12)11.8 ('21.1)13.1 (2)△3.5 (3)△30.8 (4)△35.9

### 👤 평가 및 대응

**4월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65.2만 명 증가하고, 전월비 취업자도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

- ①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65.2만 명 늘어나 2개월 연속 증가
  - ② 제조업 고용이 14개월만에 증가 전환하고 코로나19 타격이 큰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큰 폭 증가
  - ③ 민간 일자리 증가가 최근 취업자 개선의 절반 이상을 차지
  - ④ 30~40대를 포함한 전연령층의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개선되었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 개선폭이 확대
  - ⑤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이 4개월 연속 확대되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크게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
- 최근 고용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자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대면서비스업과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

- ⇒ 경기개선에 이어 고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때 “안전한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
- ① 최근의 수출·투자 등 경기회복세가 고용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더욱 강화
- ② 규제개혁,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
- ③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경기회복으로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대책 확대
  - 민간 전문훈련인력 활용 등을 통한 SW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조선업 등에 숙련인력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디지털·그린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
- ④ 특고 등에 대한 긴급고용 안정 지원 등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청년, 여성, 대면서비스 업종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노력 강화

📄 연구NOW 1

## ● 디지털 노동자의 계층화와 노동시장 이행

한국고용정보원, 2021년 5월  
이정아, 김문정, 노성철, 이덕재, 한수연

주요내용

-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요 기업의 서비스 개시와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디지털 노동자의 계층화를 질적, 양적으로 실증 분석
- 디지털 노동자는 핵심부 계층의 개발자, 주변부 계층의 운영자, 경계부의 생산자로 계층화되어 있으며 노동 시장에서 안정성의 수준과 이행 행태에서 차이를 보임
- 디지털 노동자의 계층화 자체는 서비스의 전개 과정에서 기업이 택한 접근과 전략의 필연적 산물이지만, 계층화의 결정적인 기제는 알고리즘의 역할과 관계이며 기업의 사례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알고리즘이 노동자와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알고리즘의 통제 능력 규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문제 제기

📄 연구NOW 2

## ● 비대면 시대의 인적자원개발 혁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1년 6월  
김승보, 한애리, 최영섭, 엄미정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범위와 강도, 변화 양상에서 그동안의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인적 자원개발 담론과 유사점 및 차이점 파악
- 비대면화로 인한 일자리 지형의 변화, 재택근무 활성화 여부에 따른 일-생활 영향 및 노동 여건의 변화, AR·VR 등 디지털에 기반한 스마트인프라 구축에 따른 새로운 학습공간의 확대 및 학습방식의 변화, 선택의 폭이 넓어진 학습 커리큘럼 등과 같은 인적자원개발의 양상 및 인적자원개발 주체들의 구성과 관련한 변화상을 포함한 새로운 인적자원개발의 혁신 방향 모색 필요
  -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화 경향 확산과 인적자원개발과의 관계, 이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혁신 과제 및 방향 탐색
  - 코로나19로 인한 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의 변동 실태 및 담론, 비대면화의 특징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관계 분석, 역사적 맥락에서 비대면화의 개념 및 특징 추출
  - 초중등 및 고등교육, 노동시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화 상황의 현황 분석 및 인적자원개발 혁신 관점의 정책적 과제 도출

디지털 노동자의 계층화와  
노동시장 이행



비대면 시대의  
인적자원개발 혁신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 종합평가 연구



'19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활용실태 조사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연구NOW 3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  
 ● **종합평가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년 3월  
 (위탁연구)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요내용**

- 2012년 수립된 범정부 'ODA선진화방안'에 기반하여 고용노동부가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분야 발전모델을 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자문 및 역량강화사업에 관한 종합평가연구
- 고용노동분야 정책자문사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용노동 분야 발전모델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한국과의 협력 및 개도국의 빈곤탈출 및 자립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스리랑카(직능개발), 필리핀(산업안전), 베트남(고용법)을 시작으로 9개국 15개 사업 진행
- 주요 성공 요인으로는 사업의 중장기적 접근, 현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정책자문, 협력대상국 정부의 의지 및 주인의식 존중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제약요인으로는 예산제약에 따른 사업규모의 한계, 단년도 자문사업의 한계, 여타 ODA사업과의 연계추진 노력 미흡 등으로 나타남

연구NOW 4

● **'19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활용실태**  
 ● **조사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년 3월  
 (위탁연구)주매트릭스리서치

**주요내용**

- 본 연구는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을 둘러싼 환경요인 및 유사사업 성과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사업의 독자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발전방안 모색

\* 능력중심사회 여건 조성을 위해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5년간 수행



**5.14.** 직업훈련기관 코로나19  
방역상황 현장점검

**5.27.**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고시 개정

**6.2.** 소프트웨어(SW) 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

**6.9.**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대책  
발표 및 실천협약 체결

**6.15.**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우수사례 발간

**6.18.** 컨소시엄 우수 공동훈련센터 시상식

**6월**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발행

**6월** 2021년 4월·5월·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5.7.~6.17.** 직업능력의 달 행사용역 공고

**5.31.** '21년 ASEAN+3 HRD 포럼  
전문가회의 개최

**6.8.** '21년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모집 설명회 개최

**6.14.~6.28.**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  
기술인 현장실사

**6.18.**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및  
기특한 기자단 위촉식 개최

**5.26.** 2021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5.28.** 2021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5.7.~6.18. 제5회 벤처창업아이템경진대회  
작품 접수

5.14.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전·세종·  
충남지역 총장 간담회

5.3.~5.9. NCS학습모듈 공동 개발 기관  
온라인 연수

5.25. 천안과학기술혁신추진단  
SUMMIT 포럼

5.18. 제76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포용과 혁신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5.25. 천안형 스타트업 발굴·지원사업  
업무협약식

5.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의 업무협력  
협약 체결식

6.1.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독립기념관  
업무협약식

5.24.~5.25. 마이스터고 신규 임용 교장  
대상 연수

6.2.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충청남도  
교육청 업무협약식

5.26. 2021년 제1차 커리어넷 온라인  
진로상담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6.3.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6.1.~6.4. 2021학년도 직업계고 학점제  
신규 선도학교 학교장 연수

6.10. 최고경영자과정 30기 수료식

6.2. 기관명 변경 및 비전 선포식

6.23.~6.25. 집중학기제 졸업연구작품  
전시회

6.18. 아세안직업교육협력사업  
컨설턴트 및 협력학교  
위촉식 및 연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6월중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공모  
선정 결과 발표

6.30. 2021년 제1차 사회정책포럼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

6월말 신규기관 인증평가 최종 결과 발표

~6.25. 평가도구 우수사례 공모전 접수

6.30. 하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선정 결과 발표

6~7월 디지털 신기술 실무인재양성  
해커톤 개최

미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직무

#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로 확인하세요!

## 신규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 (10건) 목록

- 디지털**      디지털포렌식, 디지털트윈기획
- 자율주행**      자율주행HW개발, 자율주행SW개발
- 스마트물류**      스마트물류체계기획,  
스마트물류플랫폼구축,  
스마트물류통합관리
- 인공지능**      인공지능서비스운영관리,  
인공지능서비스구현
- 스마트제조**      금형스마트시스템운영·관리

1

교육·훈련 현장에서  
산업변화를 반영한  
실무 중심 지침서 활용

2

관련 자격 신설  
및 훈련과정 개설  
가능해짐

3

기업에서 실무형 인재  
채용 및 직무중심  
인사관리 기준으로 활용